

궁·능·유적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궁·능·유적기관 장애인편의증진 개선모델 개발 연구 I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facilities of the disabled at palaces, royal tombs, and remains

강병근 Kang, Byoung-Keun* | 성기창 Seong, Ki-Chang** | 박광재 Park, Kwang-Jae** |
김상운 Kim, Sang-Woon*** | 김인순 Kim, In-Sun***** | 이규일 Lee, Kyu-Il***** |
강태성 Kang, Tae-Seong***** | 이기정 Lee, Ki-Jeong***** | 노지혜 No, Ji-Hye*****

Abstract

The cultural assets of the palaces · royal tombs · remains institution expanded the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at can help the disabled to watch, to propel the convenient facility expand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each facility. However, there has been limitations for the disabled facility users in viewing the cultural assets, as the facilities were not installed or were not installed properly. Due to the uniform installation of the convenient facilities that did not consider the features of the cultural assets,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cultural assets have been depreciated and the convenient use standards of the facility users such as the disabled were simultaneously unsatisfactory. Thus, this study maintains the pre-existing value of the palaces · royal tombs · remains institution that is the Korean indigenous traditional heritage, and uses a part of the improvement model development study on the palaces · royal tombs · remains institution of the disabled convenience enhancement to understand the current convenient facility installation and relevant services to find the restricted factors in using the facilities and the main problems. The problems were categorized into 13 types of questions, using the repeated problems occurred within the investigated facilities to look a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facilities, which showed that the facilities were in adequate in the aspects of convenient facility installation and relevant service.

키워드 궁, 능, 유적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분석

Keyword Palace, Royal, Ruin,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ctual Condition Analysi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4월 11일자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의

-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 정회원, 한국재활복지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 *** 정회원, 건국대학교 연구처 연구교수
- **** 정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공학박사
-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본 연구는 09년도 '궁·능·유적기관 장애인편의증진 개선사업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851-01, 문화재청)

해 2009년 4월 시설물이용관련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흐름 속에서 그동안 보호적 측면에서 도외시 되어왔던 문화재에도 보다 더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궁·능·유적기관 등의 문화재에서는 장애인의 관람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각 시설의 실정에 맞게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미설치되거나 적절하게 설치되지 못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자가 문화재를 관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또한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시설의 일률적 설치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가치를 절하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의 이용 편의수준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고유의 전통유산인 궁·능·유적기관의 기존 가치를 보존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편의시설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궁·능·유적기관 장애인편의증진 개선 모델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문화재 특수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개선방안 제시 및 개선모델 개발을 통한 장애인 문화재 이용확대 및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1차적으로 궁·능·유적기관의 실태분석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관련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제한요소 및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궁·능·유적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분석을 위해 문화재청 관할의 관리소를 두어 직접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21개소(현충사 분묘포함 22개소)의 궁·능·유적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연구 검토를 통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관련연구에 대해 고찰해보고, 조사대상시설인 궁·능·유적기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각각의 개념 및 주요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법규 검토를 통해 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사례를 포함한 각종 안내기기 및 프로그램 제공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매개시설, 이용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에 이르기까지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및 관련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시설의 시설이용 제한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주요문제점 별 현황파악이 이루어졌다.

2. 이론적 고찰

2.1 관련연구 고찰

장애인 인구나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최근 들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가로 인한 사회활동의 확대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의 각종 시설물에는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궁·능·유적기관과 같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관련 연구는 사실상 전무관련 연구는 문화재라는 측면에서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을 따르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원형유지 및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기존 건축물과의 차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성에 부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재 관련 기존의 연구는 궁의 경우 주로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고찰과 복원에 관련된 연구(최종덕, 2009; 박성진, 2007 외 다수)가 행해져 왔으며, 능의 경우 우희중(2008)의 '조선후기 왕릉제실의 공간구성의 변천에 대한 예비고찰', 조아영(2008)의 '조선왕릉의 식생관리기준에 관한 연구'와 같이 주로 제실 및 조경에 관련된 연구가 행해져 왔다. 유사 연구로는 이재구(2002)의 '박물관 건물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와 문화관광부(2005)의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발' 보고서가 있으나, 연구의 대상을 박물관 또는 관람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극장, 영화관, 음악당, 미술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이 우선시 되는 궁·능·유적기관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2 궁·능·유적기관의 이론적 배경

문화재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所産)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이 중 조사대상 시설인 궁·능·유적기관은 기념물¹⁾에 해당되며, 각각의 개념 및 주요공간에 대해 조선시대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궁궐은 경복궁(景福宮), 창덕궁(昌德宮), 창경궁(昌慶宮), 경희궁(慶熙宮), 덕수궁(德壽宮) 등 5대 궁궐이 있으며, 궁궐은 왕과 왕족 및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국가 통치를 위한 건물과 시설물들이 있고, 왕의 권위와 격식을 상징하며 정치와 문화가 집결된 곳을 말한다.

궁궐의 배치는 궁궐의 왼쪽에는 임금이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기념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에는 땅을 다스리는 신인 사(社)와 곡식을 다스리는 신인 직(稷)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稷壇)을 세웠다.²⁾ 궁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정전(正殿)으로 임금의 신하로부터 예를 받거나 외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등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곳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건물이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세운다. 정전의 뒤에는 임금이 신하들과 나라 일을 의논하는 건물인 편전(便殿)을 두었으며, 정전과 편전 주변에는 일반 신하들의 집무실이나 궁을 지키는 군신들이 머무는 건물들이 있었다. 정전과 편전 그리고 그 주변 건물이 있는 곳을 외전(外殿)이라 하며, 왕이나 왕비가 생활하는 곳을 내전(內殿)이라고 부른다. 내전에는 왕과 왕비가 사는 침전(寢殿)이 있고 왕족이나 그 밖에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많은 건물이 있다. 내전 뒤편에는 왕과 왕족들이 휴식을 하고 산책을 하는 후원이 있다.³⁾

다음으로 조선시대 왕실의 묘소는 그 품격에 따라 능·원·묘로 구분되며 왕과 왕후·추존왕의 능이 42기, 왕의 사친이나 왕의 후궁·왕세자 및 그 빈의 묘소인 원이 13기, 대군·공주·폐위왕의 묘소인 묘가 64기가 있으며 대부분 왕조의 도성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일원에 분포되어 있다. 능·원·묘는 당시의 풍수지리사상으로 배산임수의 길지를 택하여 묘역이 조성되었다. 묘역은 자연산세의 명당지세에 조산형식으로 작은 언덕을 만들고 가장 위쪽에 현실을 놓고 그 위에 원형의 봉분을 쌓으며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른다. 묘역이 있는 능침 하단부에 정자각을 세우고 오른쪽에는 비각과 비각의 아래쪽에는 수복방이 배치되며 왼쪽에는 수라간을 세웠다. 정자각 앞 신도박석 끝 부분에 홍살문을 세워 신성한 공간임을 표시하였으며, 묘역 부속탑 어귀에 재실이 있게 되나 능·원·묘의 품격에 따라 종류 및 규모가 다르게 조성된다.⁴⁾

[표 1] 조선왕릉의 주요 상설(象設)

용어	해설
능침(陵寢)	능의 주인이 잠들어 있는 곳 능상(陵上)이라고도 함
정자각(丁字閣)	제향을 올리는 곳으로 정(丁)자 모양으로 지은 집. 정자각에 오를 때는 동쪽으로 오르고 내려올 때는 서쪽으로 내려오는 데 이를 동입서출(東入西出)이라 함
비각(碑閣)	비석이나 신도비를 세워둔 곳. 신도비는 능 주인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을 말함
참도(參道)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이어진 길. 박석을 깔아 놓았으며 왼쪽의 약간 높은 길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 하여 신도(神道)라고 하며, 오른쪽 약간 낮은 길을 임금이 다니는 길이라 하여 어도(御道)라고 함
수복방(守僕房)	능을 지키는 수복이 지내던 곳으로 정자각 오른쪽 앞에 있음
홍살문(紅箭門)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문. 붉은 칠을 한 둥근 기둥 2개를 세우고 위에는 실을 바아 놓음

출처 : 이병유 외, 왕에게 가다, (주)지오 마케팅, 2008

2) 문화재청, 문화재연구, 2007
 3) 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SIGONGART, 2002
 4) 이병유 외, 왕에게 가다, (주)지오마케팅, 2008

마지막으로 유적기관은 조선시대의 유적기관 122개소와 기타 시대의 유적기관 27개소를 포함하여 총 149개소(전국 문화유적총람, 2009)로서, 전국문화유적총람의 유적종류에 따르면 위인선현유적에 해당되며 위인의 유물과 함께 위인을 기념하는 기념관,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구성된다.

[표 2] 궁·능·유적기관의 개념 및 주요공간

구분	개념	주요공간
궁(宮)	왕·왕족·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종묘, 사직단, 외전(정전, 편전 등), 내전(침전 등), 후전
능(陵)	추존왕, 추존왕비를 포함한 왕과 왕비의 무덤	능침, 정자각, 비각, 수복방, 홍살문, 수라간, 재실
유적기관	위인의 유물과 함께 위인을 기념하는 곳	기념관, 제사지내는 곳

2.3 관련법규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되는 법규로는 문화재보호법과 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 수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서 명시되고 있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기존의 연구 및 문화재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연구 및 편의시설 설치가 사실 상 도외시되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경사로나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련 현행 법률인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는 시설을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고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사항을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에서도 이와 연동하여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궁·능·유적기관은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사대상 시설인 궁·능·유적기관의 경우 현행 편의증진법 상에서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서 제외되며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의

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나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문화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 상황에 적합한 편의증진 방안 및 기준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2.4 해외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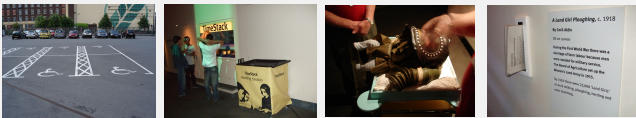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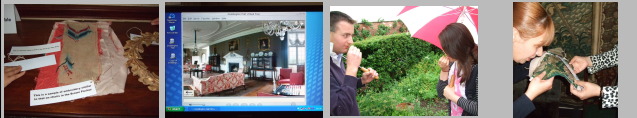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문화재 내 편의시설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 제시 시 적용 및 참고자료

[표 3] 해외사례 분석

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과 영국의 해외유적지를 중심으로 2009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에 이르기까지 8일간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방문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관찰 및 관리자 인터뷰를 통해 이질감을 최소화 한 편의시설 설치 측면과 다양한 체험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각종 안내기기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참조)

<p>1.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측면 단차 없는 부출입구 설치 • 부출입구에서 본당까지 미끄럽지 않으면서 고른 표면의 석판 보행로 설치 • 본당 외부와 내부의 단차가 발생하는 곳에 목조경사로 설치 • 석조 기단부 측면에 석조 경사로를 설치하여 재료상의 이질감 최소화 	<p>2. 니시혼간지(西本願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로는 단차 없이 접근가능하며, 일정부분 휠체어가 이동 할 수 있도록 표면이 고른 석판으로 보행로 설치 • 본당건물과 유사한 양식의 형태 및 재료와 색상을 사용하여 해당 문화재의 경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제작한 목조 승강기류 설치 • 외부 목조경사로는 본당의 재료와 유사한 색상으로 도색 • 본당 내부의 문턱이나 복도의 단차발생 부위 경사로 설치 
<p>3. 토우사(東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차 없는 부출입구 설치 • 일부 건물은 기단부까지 목조경사로 설치 • 건물 출입문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사로 중 문이 개폐되는 하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사로는 탈부착이 가능한 간 이경사로 설치 • 경사로 유도 안내판 설치 • 휴식공간에는 고른 바닥마감과 함께 지붕 설치, 휴식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사로 설치 	<p>4. 산쥬산겐도(三十三間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물의 주출입구까지 바닥에 흰색 선으로 도색하여 구분함으로써 차량이 보행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 대지 내 사찰주변에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고른 표면의 석판 보행로 설치 • (서비스)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해 문화재를 만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쥬산겐도 본당건축물의 100분의 1 축소모형 보유 • (서비스)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관람객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관음상 2분의 1 축소모형을 별도제작 및 본당 내 보유 • 축소모형과 대부분의 전시물에 점자안내판 부착 
<p>5. 기요미즈데라(清水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입구로부터 절의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우회 통행로 설치 • 휠체어 이동 안내표지를 이동경로 상의 도로바닥에 도색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함 • 휠체어의 이동가능 경로를 지도에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 대변기에 앉은 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소형세면대, 비상호출버튼, 터치식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을 설치 	<p>6. 교토 시 미술관 별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에 1.5m의 높이차(계단)가 있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의 우측에 경사로 설치 • 내부 미술품 관람동선이 단차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 단차 제거 •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측면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및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 화장실 내부에 세정장치 및 비상호출장치를 설치 
<p>7. 햄프턴코트 궁(Hampton Court Pala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 입구로부터 내부까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간이 접근로 설치 • 실 내부의 단차제거를 위해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 협소한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 • (서비스)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내부경로와 실의 정보를 평면도에 표기한 'Access Guide' 책자를 구비하여 휠체어 사용자에게 제공 • (서비스)각실 내부 형상에 대한 묘사와 역사를 상세하게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 헤드셋(Audio Guide)을 제공 	<p>8.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주출입구 전면의 계단 옆에 수직형 리프트 설치 • 박물관 내부 각 층은 모든 실로 휠체어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 없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음 • (서비스)시설 내 여러 실에 설치된 'Hands On' 코너에서는 해설자가 직접 물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며 박물관에 전시된 물품 중 일부를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관람객을 위해 음성안내헤드셋 제공 • (서비스)안내데스크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루프시스템 구비 

[표 3] 해외사례 분석(계속)

영국	9.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10. 도딩턴 홀과 정원(Doddington Hall & Gard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 바닥에 안내표시 설치 (서비스)박물관을 이용하는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쟁당시 사용하였던 물품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Time Stack'이라는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약시자를 위해 박물관 안내평면도와 프로그램 안내책자를 큰 문자(Large Print)로 제작하여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시 물품 중 일부를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코너(Touching Table)를 건물 내부에서 운영 (서비스)'Virtual Tou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해당 실을 돌아보는 것과 같이 직접 시선을 조정하고 원하는 부분의 화면은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함 (서비스)정원의 소리를 들으며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Sensory Tour)을 교육받은 담당직원의 지도하에 운영 (서비스)각실 내부의 형상에 대한 묘사를 상세하게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기기(Audio Guide) 제공
		

[표 4] 해외사례 분석대상

구분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1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사찰	일본 교토
2	니시혼간지(西本願寺)	사찰	일본 교토
3	토우사 (東寺)	사찰	일본 교토
4	산주산겐도(三十三間堂)	사찰	일본 교토
5	기요미즈데라(清水寺)	사찰	일본 교토
6	교토 시 미술관 별관	미술관	일본 교토
7	햄프턴코트 궁(Hampton Court Palace)	궁궐	영국 런던
8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박물관	영국 런던
9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박물관	영국 맨체스터
10	도딩턴 홀과 정원(Doddington Hall & Gardens)	주택	영국 린컨

[표 5] 실태조사의 개요

조사명	조사 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시기
예비 조사	기초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자료 수집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검토 기본실태 조사 	궁·능 4개소 (창경궁, 창덕궁, 종묘, 태능)	2009년 4월~5월
본조사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시설 설치현황 -이용, 매개, 위생, 안내시설 •이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이용현황 및 이용프로그램 -인적·물적 서비스 	궁 및 종묘 (5개소) 능 (13개소) 유적기관 (3개소)	2009년 5월~6월



[그림 1] 실태분석의 기준

3. 궁·능·유적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분석

3.1 분석의 개요

궁·능·유적기관의 실태조사는 문화재청 관할의 관리소를 두어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21개의 시설을 대상(현충사 분묘포함 22개소)으로 이루어졌다.

궁 및 종묘 5개소, 능 13개소, 유적기관 3개소의 문화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실태조사의 개요 및 대상 시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5], [표 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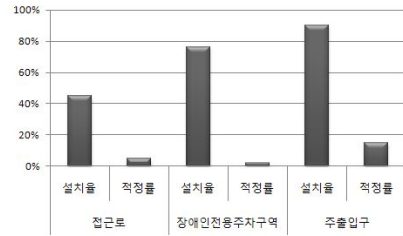
실태분석은 이용시설,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증진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적기준 검토 및 관련 서비스현황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시설이용제한요소 및 주요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6] 조사대상 시설

No	시설명	소재지	시설유형
1	경복궁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궁
2	창덕궁	서울 종로구 을곡로 99	궁
3	창경궁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5	궁
4	덕수궁	서울 중구 태평로 58	궁
5	종묘	서울 종로구 종로 155	종묘
6	정릉	서울 성북구 능길 74	능
7	서오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5	능
8	서삼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7-1	능
9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7	능
10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길 233	능
11	태릉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3	능

No	시설명	소재지	시설유형
12	홍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	능
13	현인릉	서울 서초구 현인릉길 42	능
14	선릉	서울 강남구 선릉아래길 7	능
15	웅건릉	경기 화성시 안녕동 효행길 611	능
16	파주삼릉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거리 55	능
17	장릉	경기 김포시 풍무동 장릉앞길 121	능
18	의릉	서울 성북구 예술길 100	능
19	현충사 (분묘포함)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	유적기관
20	세종대왕	경기 여주군 능서면 영릉로 243	유적기관
21	칠백의총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40	유적기관

또한 위생시설에서는 ‘화장실 편의시설의 부적정 설치’, 안내시설에서는 ‘안내체계의 미비, 기타 안내관련 서비스의 미비’ 등이 있다.



[그림 2] 매개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3.2 편의시설 설치 현황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이용가능성 측면 적정설치 여부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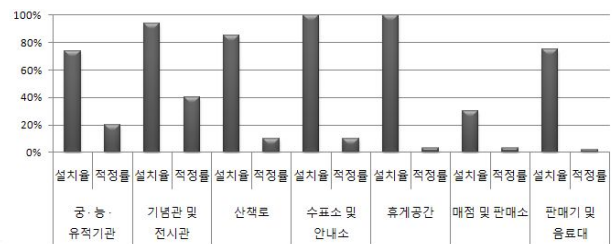
현행 편의증진법 상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궁·능·유적기관관람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이용시설로서의 기념관 및 전시관, 산책로, 수표소 및 안내소, 휴게공간, 매점 및 판매소, 판매기 및 음료대, 공중전화 등을 이용시설로 규정짓고 조사의 내용을 매개시설, 이용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매개시설의 경우에는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가 해당되며, 이용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궁·능·유적기관의 주요이용시설로서 기념관 및 전시관, 산책로, 수표소 및 안내소, 휴게공간, 매점 및 판매소, 판매기 및 음료대, 공중전화가 해당, 위생시설에는 내·외부 화장실이 해당되며, 안내시설에는 안내도 및 안내판, 그리고 안내기기 등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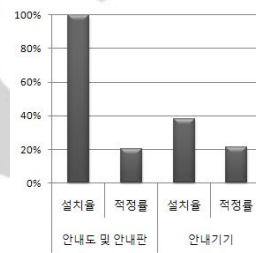
매개시설, 이용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에 이르기까지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이용가능성 측면 적정설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설치율(분석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수에 대한 실제 설치 수를 %로 환산한 값)에 비해 적정 설치율(편의시설 설치 수에 대한 적정 설치 수를 %로 환산한 값)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적정 설치율을 저하로 인해 시설이용에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 시설이용의 제한 요소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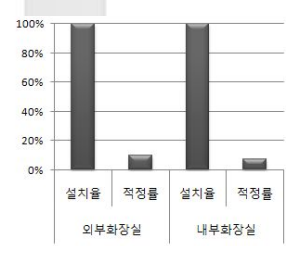
매개시설에서는 ‘접근로의 접근 및 보행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적정 설치, 주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이며, 이용시설에서는 ‘보행로의 안전성 부족, 산책로의 접근 및 보행 장애, 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 주요부분 관람 장애, 관람동선의 단절, 판매기·판매대·음료대 및 공중전화의 부적정 설치, 휴게시설 부족 및 접근 장애’이다.



[그림 3]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그림 4] 위생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그림 5] 안내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3.3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이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조사를 통해 장애인 이용가능 프로그램 현황, 장애유형별 인적 서비스 현황, 물적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다.

장애인 이용가능 프로그램으로는 시청각 프로그램 및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이 있으며 조사대상 시설 21개소 중 시청각 강의는 19%(4개소)인 종묘, 정릉, 현릉, 의릉에서 행해지고 있었으며 문화재 해설의 경우 대상시설 전체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응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는 장애유형별 인적 서비스로는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배려한 이동보조 도우미와 모든 장애유형을 배려한 안내도우미가 있으나 대상시설 전체에서 전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상시설에서 이동보조기기 대여, 안내보조기기 대여, 접근 수단 등의 물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 수동 휠체어의 경우 대상시설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동 휠체어의 경우 43%(9개소)인 경북궁, 덕수궁, 종묘, 서오릉, 태릉, 선릉, 파주삼릉, 현충사,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서 보유 및 대여하고 있었다.

특수 장비 휠체어의 경우 5%(1개소)인 덕수궁,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5%(1개소)인 현충사에서만 보유 및 대여하고 있었다.

대상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는 물적 서비스의 하나인 청각보조기기 대여의 경우 대상시설 전체에서 전무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음성유도기기 대여의 경우 대상 시설의 10%(2개소) 경북궁과 창덕궁에서만 책자나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

그리고 대상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는 물적 서비스의 하나인 접근수단의 제공으로는 음성 웹 정보접근과 셔틀버스 접근을 들 수 있는데, 음성 웹 접근의 경우 대상시설 전체에서 전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셔틀버스 접근의 경우 대상 시설의 5%(1개소)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서만 시간대를 배정하여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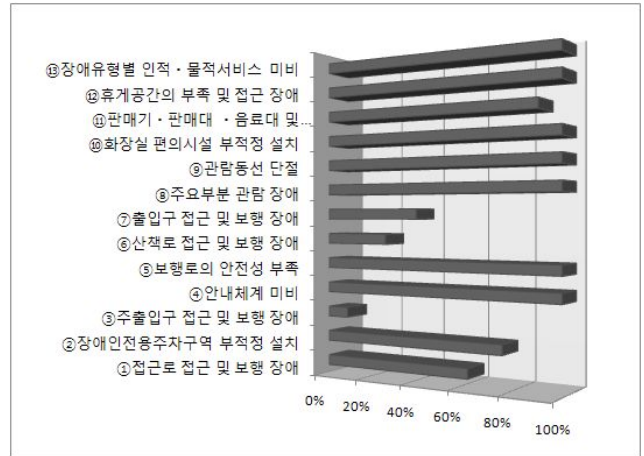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분		현황	
		개소	백분율
장애인이용가능 프로그램	문화재 해설	21개소	100%
	시청각 강의	4개소	19%
장애유형별 인적 서비스	이동보조	지체장애인	0개소 0%
		시각장애인	0개소 0%
	안내	시각장애인	0개소 0%
		청각장애인	0개소 0%
물적 서비스	이동보조기구	수동휠체어	21개소 100%
		전동휠체어	9개소 43%
		특수장비휠체어	1개소 5%
		휠체어리프트	1개소 5%
	안내보조기기	음성안내기기	2개소 10%
		큰문자·점자안내서	0개소 0%

3.4 조사대상시설의 실태 및 주요문제점 도출

실태분석의 조사대상 시설인 21개소의 궁·능·유적기관은 매개시설, 이용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설치율에 비해 적정 설치율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재 내 각종 개선사업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적정하게 설치하고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이 부적정 설치 및 서비스의 미비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①접근로의 접근 및 보행 장애 ②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적정 설치 ③

주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 ④안내체계의 미비 ⑤보행로의 안전성 부족 ⑥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한



[그림 6] 조사대상 시설의 주요문제점 발생률

[표 8] 조사대상 시설의 문제현황

No	시설명	문제현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1	경복궁		●	●	●	●		●	●	●	●	●	●	●
2	창덕궁	●	●	●	●	●	●	●	●	●	●	●	●	●
3	창경궁				●	●	●	●	●	●	●	●	●	●
4	덕수궁				●	●	●	●	●	●	●	●	●	●
5	종묘	●			●	●	●	●	●	●	●	●	●	●
6	정릉	●			●	●			●	●	●	●	●	●
7	서오릉		●		●	●	●		●	●	●	●	●	●
8	서삼릉	●			●	●			●	●	●	●	●	●
9	광릉	●	●		●	●			●	●	●	●	●	●
10	동구릉	●	●		●	●			●	●	●	●	●	●
11	태릉	●	●		●	●			●	●	●		●	●
12	홍유릉	●	●		●	●		●	●	●	●	●	●	●
13	현인릉	●	●		●	●		●	●	●	●	●	●	●
14	선릉	●	●		●	●			●	●	●	●	●	●
15	용건릉	●	●		●	●			●	●	●	●	●	●
16	파주삼릉	●	●		●	●			●	●	●	●	●	●
17	장릉	●	●		●	●			●	●	●		●	●
18	의릉	●	●		●	●			●	●	●	●	●	●
19	현충사		●		●	●			●	●	●	●	●	●
		분묘		●		●	●	●		●	●	●	●	●
20	세종대왕	●			●	●			●	●	●	●	●	●
21	칠백의총		●		●	●			●	●	●	●	●	●

- ① : 접근로의 접근 및 보행 장애
- ②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적정 설치
- ③ : 주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
- ④ : 안내체계의 미비
- ⑤ : 보행로의 안전성 부족
- ⑥ : 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한 산책로 접근 및 보행 장애
- ⑦ : 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
- ⑧ : 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한 주요부분 관람 장애
- ⑨ : 관람동선의 단절
- ⑩ : 화장실 편의시설의 부적정 설치
- ⑪ : 판매기·판매대·음료대 및 공중전화의 부적정 설치
- ⑫ : 휴게공간의 부족 및 접근 장애
- ⑬ : 장애유형별 인적·물적 서비스의 미비

산책로 접근 및 보행 장애 ⑦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 ⑧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한 주요부분 관람 장애 ⑨관람동선의 단절 ⑩화장실 편의시설의 부적정 설치 ⑪판매기·판매대·음료대 및 공중전화의 부적정 설치 ⑫휴게공간의 부족 및 접근 장애 ⑬장애유형별 인적·물적 서비스의 미비 총 1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그림 6], [표 8]의 번호 같음.)

조사대상 시설의 중복된 문제발생으로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13가지의 문제유형별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문제점 별 실태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보행 장애물 및 보도와 차도의 미 분리 등으로 인해 휠체어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장애요소가 나타나는 등 접근로의 접근 및 보행 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의 미확보 혹은 부적정 설치로 인해 주차장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장애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출입구 접근 및 보행 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안내판에 점자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안내체계가 미비하여 시설이용약자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추락의 우려가 있는 보행로 상에 추락방지턱을 미설치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주출입구 외에 관람의 주요부분을 출입하는 출입구 접근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단차 및 대지의 구배로 인해 관람동선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으며, 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해 주요부분 관람 시 접근 및 보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 대상 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판매기·음료대 및 공중전화 전면에 단차가 있거나 구조가 부적절하여 시설이용약자 등의 접근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장실 내 유히폭 및 활동공간을 미 확보하는 등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행로 상에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관람도중 휴식을 취하고자 할 경우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휴게공간 전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접근에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표 9] 주요 문제점별 실태현황

구분	실태현황	구분	실태현황
1	<p>접근로의 접근 및 보행 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 후 대지 내에 진입하기까지 블라드 등의 보행 장애물 및 보도와 차도의 미 분리 등으로 인해 휠체어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장애요소가 나타남. •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능 및 유적기관의 경우, 대상 시설의 대부분이 대중교통 하차지점과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데 무리가 있음 • 능의 경우, 보도의 연속성이 부족하거나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등 보행 안전통로가 대다수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2	<p>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적정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시설 21개소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6개소에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있는 15개소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차구역의 법적 기준에 미달되거나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대부분의 시설에서 입식 안내 표지판이 미설치되거나 적정규격 및 높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 밖에도, 관리 소홀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차장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장애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3	<p>주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시설 중 몇몇 궁에서는 주출입구 접근 및 보행 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 창덕궁의 경우 단차 및 배수구 틈새 등의 보행 장애물로 인해 휠체어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주출입구로의 이동 및 접근에 어려움이 나타남. • 경복궁 등의 진입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유히폭이 미달되거나 부적절한 경사구배로 인해 휠체어장애인의 접근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4	<p>안내체계의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시설 중 대부분의 시설이 안내데스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수표소에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적정구조를 확보하지 않는 등 장애유형별 관람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안내판에 점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촉지도 및 음성유도기 부착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장애인관람동선 표시 미비 및 안내판의 작은 글씨크기로 인해 청각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전면의 턱이나 구배 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 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표 9] 주요 문제점별 실태현황(계속)

구분	실태현황	구분	실태현황
5	보행로의 안전성 부족	6	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한 산책로 접근 및 보행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에 있는 다리의 경우 추락방지턱을 미설치하여 추락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배수구 틈새 등이 2cm를 초과하여 지팡이 등의 보조기구가 틈새에 걸리는 등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몇몇 능에서는 경사구배가 심하여 시설이용 약자의 접근 및 보행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주출입구에서 관람의 주요부분에 이르기까지의 산책로 상에도 보행 장애요소가 나타남(종묘의 경우, 바닥마감의 변화로 관람동선이 단절되어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 발생) 
7	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	8	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한 주요부분 관람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출입구 외에 관람의 주요부분을 출입하는 출입구 접근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출입구 문턱으로 인해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관람 시 접근 및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경사구배 및 수평침의 미설치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문제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해 주요부분(궁 : 전·당·각, 능 : 정자각 및 능침, 유적기관 : 전·당·각 및 능침, 기념관)관람 시 접근 및 보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종묘의 경우 바닥의 판석 및 신도로 인해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관람 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종묘를 포함한 대부분의 궁의 경우 계단 및 단차로 인해 전·당·각으로의 접근에 장애가 나타나고 있음. 능의 경우 참도의 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해 정자각으로의 접근에 장애가 발생, 정자각 계단 및 내부단차로 인해 정자각 접근 및 내부이동에 어려움이 나타남. 능침의 경우, 심한 구배 및 계단으로 인해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9	관람동선의 단절	10	화장실 편의시설의 부적정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도의 단차 및 요철로 인해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관람에 문제가 발생하여 관람동선이 단절되어 관람 및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이 밖에도 단차 및 대지의 구배로 인해 관람동선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내 유효폭 및 활동공간을 미 확보하는 등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전면 점형블록을 미설치하거나 안내표지판 높이의 부적합으로 인한 식별성 미확보, 손잡이의 부적정 설치, 세면대 보조손잡이 및 수도꼭지 냉·온수 점자 미표시, 출입문 잠금장치·사용여부 시각확인장치 미설치 
11	판매기·판매대·음료대 및 공중전화의 부적정 설치	12	휴게공간의 부족 및 접근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판매대·음료대 및 공중전화 전면엔 단차가 있거나 구조가 부적합하여 시설이용약자 등의 접근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동전투입구와 조작버튼의 높이가 부적절하거나 점자를 표시하지 않아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 상에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관람도중 휴식을 취하고자 할 경우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휴게공간 전면엔 단차가 있는 경우 접근에 장애가 나타나고 있음.  
13	장애유형별 인적·물적 서비스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는 휠체어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이동보조·안내 도우미 등의 인적 서비스는 대상시설 전체에서 전무함 이동보조기구·안내보조기기 대여, 접근 수단 등의 물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긴 하나, 이동보조기구의 경우 보행로의 바닥마감 및 단차를 고려한 특수장비 휠체어 등이 제공되고 있는 시설이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음성안내기기 대여 및 접근수단의 제공 역시 소수의 시설에서만 제공되고 있음. 장애인 이용가능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설 역시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제공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응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4. 결론

본 연구는 궁·능·유적기관 장애인편의증진 개선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궁·능·유적기관의 실태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낸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매개시설, 이용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에 이르기까지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이용가능성 측면 적정설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설치율에 비해 적정 설치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적정 설치율 저하로 인해 시설이용에 제한이 따르게 되는 데, 시설이용의 제한 요소를 나열해 보면 매개시설에서는 ‘접근로의 접근 및 보행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적정 설치, 주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이며, 이용시설에서는 ‘보행로의 안전성 부족, 산책로의 접근 및 보행 장애, 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 주요부분 관람 장애, 관람동선의 단절, 판매기·판매대·음료대 및 공중전화의 부적정 설치, 휴게시설 부족 및 접근 장애’이다. 또한 위생시설에서는 ‘화장실 편의시설의 부적정 설치, 안내시설에서는 ‘안내체계의 미비, 기타 안내관련 서비스의 미비’ 등이 있다.

둘째, 이와 같이 부적정 설치 및 서비스의 미비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①접근로의 접근 및 보행 장애 ②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적정 설치 ③주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 ④안내체계의 미비 ⑤보행로의 안전성 부족 ⑥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한 산책로 접근 및 보행 장애 ⑦출입구 접근 및 보행 장애 ⑧바닥마감 및 단차로 인한 주요부분 관람 장애 ⑨관람동선의 단절 ⑩화장실 편의시설의 부적정 설치 ⑪판매기·판매대·음료대 및 공중전화의 부적정 설치 ⑫휴게공간의 부족 및 접근 장애 ⑬장애유형별 인적·물적 서비스의 미비 총 1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시설의 중복된 문제발생으로 문제점을 13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 편의시설 설치측면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등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해당문화재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태분석을 통해 나타난 궁·능·유적기관의 주요문제점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유산을 사회적 통합이 가능한 장소로 구축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존 궁·능·유적기관의 기존 가치를 보존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궁·능·유적기관에 대한 이용자요구도 분석

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개선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관련 연구가 전무한 현재의 시점에서, 문화재 훼손방지 측면에서 접근한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건국대학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발, 2005
2. 건국대학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02
3. 건국대학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건축설계 매뉴얼, 2007
4. 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SIGONGART, 2002
5.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7
6. 문화재청, 아하! 문화재 : 알고보니 쉬워요, 2004
7. 이병유 외, 왕에게 가다, (주)지오마케팅, 2008
8.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 편), 2007
9. 한국장애인개발원-건국대학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 궁·능·유적기관 장애인편의증진 개선사업연구, 2009